

가족의 애착, 귀인양식 및 자아탄력성과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의 관계

허 정 선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정신과 환자의 부모가 과거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과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 사이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표출정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귀인양식과 자아탄력성이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과 환자와 그 가족 9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애착유형과 표출정서, 그리고 가족의 귀인양식과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부모의 애착은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귀인양식의 3요인 중 부정 사건에 대한 안정귀인은 애착과 부적 상관, 표출정서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모의 자아탄력성은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어린 시절 형성한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이 후에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반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회복을 위해선 약물과 개인치료 뿐 아니라, 가족의 애착과 귀인양식, 그리고 자아탄력성에 초점을 두어 이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치료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표출정서, 부모의 애착, 귀인양식, 자아탄력성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현 명 호 /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TEL : 02-820-5125 / E-mail : hyunmh@cau.ac.kr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이라는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 가족은 개인이 다양한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서 가족 성원과 함께 평생을 보내는 벗어날 수 없는 공간이기도 하다. 또한 성원 간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게 되는 중요한 체계이다. 그러나 어떤 가족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가족 간에 서로 비난하고 다투고 질시하는 등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다른 어떤 환경적 위험요인 보다는 더욱 강한 스트레스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그 스트레스를 견뎌내지 못하여 심리적인 장애를 경험하거나 혹은 치료가 된 후에도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최근 들어 가족이라는 환경 중 특히 가족이 환자에게 표현하는 부정적인 정서 수준이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많은 연구에서 가족의 정서적 분위기, 특히 환자에게 나타내는 가족들의 표출정서(Expressed Emotion; EE)가 정신장애의 재발 및 예후와 상관이 높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이다(Brown, Birely & Wing, 1972; Falloon, Boyd, McGill, Strang, Moss, & Gilderman, 1982; MacMillan, Gold, Crow, Johnson, & Johnston 1986; Vaughn & Leff, 1976). 이는 환자의 증상이 아무리 약물과 심리치료로 경감된다고 하더라도, 퇴원 후 변함없는 가족의 분위기나 가족 구성원의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에 부딪히게 되면 스트레스에 취약한 정신과 환자가 재발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표출정서란 '정신장애 환자에게 그 가족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말한다. 이는 비난(criticism), 적대감(hostility), 그리고 정서적 과잉관여(emotional over-involvement)라는 세 가지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비난은 '환자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한 싫어함, 불만이나 비난을 나타내는 명확한 진술, 혹은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정의되고, 적대감은 '특정한 행동보다는 환자에 대한 일반적인 비난과 혐오감, 즉 특정한 행위에 대한 비난이 아닌 환자의 전반적인 행동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된 것'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과잉관여는 '환자에 대한 극적이고, 과잉보호적, 지나친 헌신적 행동, 혹은 자기희생적인 반응'으로 정의할 수 있다(Vaughn & Leff, 1976).

표출정서는 정신분열증 환자만이 아니라 기분장애, 불안장애, 섭식장애, 물질관련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품행장애 등 대부분의 다른 정신과 장애와도 관계가 있다(Butzlaff & Hooley, 1998; Chambless, Bryan, Aiken, Steketee, & Hooley, 2001; Hooley, 1986; Miklowitz, Goldstein, Nuechterlein, Synder & Mintz, 1988; Miklowitz, Wendel & Simoneau, 1998; Peris & Baker, 2000). 즉, 처음에는 표출정서가 정신분열증 환자의 재발 예측인으로서 연구가 시작되었지만, 이제 거의 모든 정신장애에서 재발의 일반적인 위험요인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한편 표출정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표출정서에 대한 취약성-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이 제시되었는데(Hooley & Gotlib, 2000), 이 접근은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이 될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이 모델에 따르면 표출정서가 높아지게 될 가족의 특성을 취약성으로 볼 때, 이런 취약성을 가진 가족을 자극하는 스트레스 요인(환자의 문제행동, 대인관계 문제 등)이 있게 되면 가족의 표출정서가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 접근은 표출정서가 가족들의 특질이나 아니면 상황이나 라는 간단한 공식을 초월하여 표출정서가 하나의 관계적(relational) 변인임을 설명한다. 즉, 표출정서란 가족 특성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라는 관점을 제공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이 제시되면서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과 낮은 가족의 인지와 성격특성의 차이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취약성-스트레스 모델에서 밝힌 바와 같이,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은 표출정서가 높아질 성격적인 특성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런 개념과 일치하는 연구들은 가족의 특성으로 애착, 귀인, 그리고 성격특성을 연구하였는데 그 중 가족이 자신의 부모(원가족)와 형성한 애착에 대한 연구를 보면, 애착이 표출정서를 높이는 가족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 연구들은 Bowlby(1977)의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과 세대간 전달(transgenerational patterns)의 개념을 도입하여 초기 애착과 후의 양육행동과의 관련성을 통해 표출정서를 설명한다. 유아는 자신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부모의 양육행동을 내재화하여 부모가 되었을 때 그 행동을 자신의 자녀에게 반복하여 보이는 경향을 보이므로, 즉 가족은 자신의 부모가 양육했던 방식으로 환자에게 반응한다고 할 수 있다(Paterson & Moran, 1988).

위와 같은 애착과 일반적인 양육행동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Diamond와 Doane(1994)은 애착과 표출정서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 연구는 자신의 부모와 형성한 애착이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불안정 애착의 세대간 전달이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임을 밝혔다. 표출정서란 부모 자신의 불안정 애착경험(attachment history)과 그 표상(representation)에서 나오게 되는 것으로, 부모와의 불안정 애착을 통해 형성된 부정적 내적 작동모델이 현재 관계에 동화됨으로써 역기능적 의사소통이 야기되며 자녀에게 부정적 정서를 보이게 되고, 따라서 자녀들은 또다시 부모가 보이는

불안정 애착 표상을 내면화 할 것이다.

애착에 대한 대다수 연구들은 애착이 다양한 인지와 성격적 매개요인을 통하여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관련을 맺는다고 보고한다(Roberts & Godlib, 1996; 장휘숙, 1998). 그 중 귀인양식은 애착의 작동모델이 영향을 미치며 여러 가지 관계 기능에 중요한 인지 과정으로 밝혀졌는데,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형성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 모델이 관계에 대한 부정적 신념과 기대를 만들게 되어 여러 사건에 대해 부정적 귀인을 하게 된다고 설명한다(Bradbury & Fincham, 1988, 1990; Fletcher & Fincham, 1991).

또한 가족이 환자의 문제 행동에 하는 귀인이 표출정서가 높아지는데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었다. 문제의 원인에 대해 환자가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나 통제하지 못한다고 믿으면 비난이나 적대감이 나오게 된다. 통제가능성 이외에, 문제의 원인을 환자에게 내부귀인하며 환자의 개인적 특성에 귀인하는 것 또한 높은 표출정서와 관련된다. 즉,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은 문제 행동이 다른 환자에게도 모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자녀인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하고 개인적인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arrow, Johnston & Tarrier, 1994; Brewin, MacCarthy, Duda & Vaughn, 1991; Hooley & Licht, 1997; Weissman, Lopez, Karno & Jenkins, 1993).

이와 더불어, 애착과 관련된 성격변인으로 자아탄력성(Ego-Resiliency)이 연구되었는데 자아탄력성이란 변화하는 상황적 요구들에 좌절을 느끼지 않으며 스트레스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게 반응하는 경향성을 일컫는다. 결국 포괄적으로 자아탄력성은 “외적·내적 스트레스에 맞서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이라 할 수 있다(Block

& Block, 1980). 안정되고 편안한 가정환경과 어머니와의 안정애착이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이 지지되었는데 (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roufe, Carlson & Shulman, 1993), 안정애착 유아는 발달적 과제를 더 적응적으로 해결해 나간 반면, 불안정 애착유아는 후기 아동기에 의존성이 증가했고, 사회적 유능감과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과제해결에 어려움을 나타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이 자아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 장휘숙, 2001).

현재까지 표출정서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아직도 근본적인 표출정서의 원인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고, 어떻게 가족이 표출정서가 높고 낮은 가족으로 발달하는지 그 기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밝혀줄 연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표출정서의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표출정서가 높고 낮은 가족 간의 기본적인 기질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으로 발달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표출정서의 가족적 원인으로 알려진 애착,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의 특성으로 알려진 귀인과 자아탄력성이라는 변인들이 어떻게 상호관련 되어 있고, 또 이것들이 표출정서가 높아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표출정서 발달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초기 부모와의 애착을 통해 내적 작동모델이 형성되어 후에 자녀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들을 토대로(Diamond & Doane, 1994; Paley, Shapiro & Worrall-Davies, 2000), 환자 부모의 과거 애착과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검토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표출정서에 대한 애착의 직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그 과정으로 애착과 표출정서 사이를 잠재적으로 매개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애착과 귀인, 또한 귀인과 표출정서와의 관계성은 꾸준히 검토되어 왔다. 귀인양식은 학자마다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측정 도구도 여러 가지를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의 귀인모형으로 시작하여 현재 많은 연구에서 애착, 귀인 및 친밀한 관계의 연구로 주로 사용되어 온 귀인양식을 일반적인 귀인양식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내부/안정/총체 귀인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며, 내부 귀인은 사건을 자신의 내적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을, 안정 귀인은 사건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귀인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총체 귀인은 사건을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요인으로 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불안정 애착이 낮은 자아탄력성과 관련 있다는 결과들이 지지되어 왔다(Kerns & Steven, 1996; Kobak & Sceery, 1988; Shaver & Brennan, 1992; Sroufe et al., 1993; 장휘숙, 2001).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부모의 애착과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를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귀인과 자아탄력성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과 경기의 종합병원 내 정신과 입원환자, 외래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정신보건 센터에서 재활 치료 중인 환자와 그 가족을 대

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최종 참가자 수는 91명으로 참가한 환자의 평균 연령은 22.10세(SD=11.55)이며 성별은 남자 70명, 여자 21명이며 정신분열증 31명, 우울장애 14명, 양극성 장애 5명, 불안장애 10명, 품행장애 5명 그리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는 26명이였다. 병의 지속기간은 1년 미만인 30명, 1년-5년이 28명 그리고 5년 이상이 33명이였다.

참가한 부는 9명, 모는 82명이고 40세 이하는 23명, 40-50세는 35명, 51-60세는 13명 그리고 61세 이상은 20명이였다.

측정 도구

한국판 표출정서 수준 질문지 (Korean-Level of Expressed Emotion; K-LEE)

이 질문지는 가족에 대한 환자의 지각된 표출정서를 측정하기 위해 Cole과 Kazarian(1988)이 개발한 표출정서 수준 질문지(Level of Expressed Emotion; LEE)를 배헌석(2000)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으로, 총 45문항의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요인은 지지 부족, 비난, 그리고 간섭으로 구성되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내적 일치도는 $\alpha=.89$ 로 나타났다.

부모 애착 척도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PPA)

환자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과 Greenberg(1987)가 개발한 것 중 부모애착을 측정하는 28문항을 정정숙(1994)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90$ 으로 나타났다.

귀인양식질문지(Attributeal Style Questionnaire; ASQ)

환자 부모의 귀인양식을 평가하기 위해 Peterson, Semmel, von Baeyer, Abramson, Metalsky 와 Seligman (1982)이 개발한 것으로, 긍정적 사건 및 부정적 사건 각각 6가지로 구성된 12개의 가설적 상황에 대해 그 가능한 원인을 쓰고 내부, 안정성, 통제성 차원에서 귀인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alpha=.83$ 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 척도(Ego-Resiliency Scale; ER 89)

Block과 Kremen(1996) 이 개발한 것으로 환자 부모의 자아탄력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자가 1차로 번역한 문항들을 3명의 심리학 전공 대학원생들에게 읽게 하고 이해하기 힘든 문항들을 지적하는 절차를 거쳤다. 1차 수정을 거친 문항들을 번역사 자격증 소지자와 영어 및 한국어에 능통한 교포에게 2차 수정작업을 거치게 하였다. 총 14문항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alpha=.85$ 로 나타났다.

절차

설문지 배부는 병원 5곳에서 의사와 임상심리학자에 의해 정신분열증, 기분장애, 불안장애, 품행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진단된 환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부모와 함께 방문한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지를 나눠주고 수거하였고, 부모 없이 혼자 방문한 환자의 경우에는 집에 돌아가 부모에게 설문을 하게 하여 그 다음 내원 일에 회수하였다.

정신보건 센터의 경우, 먼저 전국에 있는 센터에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했다. 동의에 응한 센터는 서울 2곳과 경기 4곳, 울산 1곳으로 가족모임에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설문하거나, 우편을 통

해 설문지를 보내서 센터에서 수거하게 한 후 우편으로 발송받았다.

결 과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 포함된 각 변인들의 상관행렬은 표 1과 같다. 표출정서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척도는 애착이었고, $r=-.575, p<.001$, 다음으로는 자아탄력성이었다, $r=-.359, p<.001$. 그 다음은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 $r=.284, p<.01$ 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머지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총체 귀인과 긍정사건에 대한 내부/안정/총체 귀인은 표출정서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착은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 $r=.303, p<.01$,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과 부적 상관, $r=-.238, p<.05$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탄력성은 긍정사건에 대한 총체귀인, $r=.207, p<.05$,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귀인, $r=-.233, p<.05$, 그리고 안정귀인 $r=-.389, p<.001$ 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애착과 표출정서와의 관계가 가장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애착, 자아탄력성 및 표출정서와의 관계성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귀인의 하위요인 중,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만이 애착과 표출정서와 각각 부적, 정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이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

애착이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이 애착은 표출정서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F(1, 89)=43.961, p<.001$.

표 1. 애착, 표출정서,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의 내부/안정/총체 귀인, 자아탄력성의 상관행렬

변인	1	2	3	4	5	6	7	8	9
1. 애착	-								
2. 표출정서	-.575***	-							
3. 내부귀인	.114	-.166	-						
4. 안정귀인	.020	-.152	.508***	-					
5. 총체귀인	.099	-.149	.462***	.683***	-				
6. 내부귀인	.004	.005	.034	.190	.015	-			
7. 안정귀인	-.238*	.284**	-.193	.060	.042	.270**	-		
8. 총체귀인	-.071	.120	.026	-.060	.213*	.189	.471***	-	
9. 자아탄력	.303**	-.359***	.186	.154	.207*	-.233*	-.389***	-.084	-

* $p<.05$ ** $p<.01$ *** $p<.001$

주. 3, 4, 5(이탤릭체)는 긍정사건에 대한 내부/안정/총체 귀인.

6, 7, 8(굵은체)은 부정사건에 대한 내부/안정/총체 귀인.

표 2. 애착이 표출정서에 미치는 영향

예측변인	R ²	F	β
애착	.331	43.961 ***	-.575 ***

*** $p < .001$

애착과 표출정서에 대한 귀인양식의 매개효과

애착과 표출정서의 관계를 귀인양식이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에 대한 귀인을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러나 표 1에 의하면 귀인양식 중에서 애착과 표출정서와 상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안정귀인 뿐이어서 내부귀인과 총체귀인은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의 안정귀인만을 분석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은 Baron과 Kenny (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첫째, 독

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두 번째 단계에서의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것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매개변인이 개입되었을 때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관계가 더 적게 나타나야 매개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설명할 수 있다.

표 3은 긍정사건과 부정사건에서의 안정귀인이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는 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 표를 보면 긍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은 애착과 표출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애착이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을 유의하게 설명하였지만,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이 표출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안정귀인이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지 못하였으므로 매개 효과 가설은 지지되지 못하였다.

표 3. 안정귀인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 계	종 속 변 인	Beta
긍정사건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애착 → 안정귀인	.020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애착 → 표출정서	-.575 ***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1) 애착 → 표출정서 2) 안정귀인 → 표출정서	-.572 *** -.141
부정사건	1단계	애착 → 안정귀인	-.238 *
	2단계	애착 → 표출정서	-.575 ***
	3단계	1) 애착 → 표출정서 2) 안정귀인 → 표출정서	-.538 *** .155

* $p < .05$ *** $p < .001$

표 4.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 계	종 속 변 인	Beta
1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303 **
	애착 → 자아탄력성	
2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575 ***
	애착 → 표출정서	
3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인 → 종속변인)	-.513 ***
	1) 애착 → 표출정서	
	2) 자아탄력성 → 표출정서	

* $p < .05$ ** $p < .01$ *** $p < .001$

애착과 표출정서에 대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자아탄력성이 애착과 표출정서와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애착이 자아탄력성을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애착이 표출정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자아탄력성이 표출정서를 유의하게 설명하였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회귀계수가 두 번째 방정식에서 보다 더 작아졌다. 따라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환자 부모가 과거 그 자신의 부모와 형성했던 애착경험이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토대로 (Diamond & Doane, 1994; Paley et al., 2000), 부모의 인지적·성격적 특성인 귀인양식과 자아탄력성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과 부모의 과거 애착은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를 의미 있게 설명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의 내적 작동모델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자신의 부모를 통해 형성된 내적 작동모델이 자녀와의 상호작용 맥락 안에서 그대로 유발되면서 표출정서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 자신의 불안정 애착으로 인해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내면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표출정서가 높아지게 되고, 또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부정적 표상을 내면화하면서 세대 간 전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애착이 정서조절과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Kobak & Sceery, 1988; Matas, Arend & Sroufe, 1978; Sroufe, 1983)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은 부적절한 정서조절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본 연구에 적용하면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정서조절에 문제가 있어 자녀의 문제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표출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대상관계이론에서 설명하는 표상적 세계와 실제 가족과의 상호작용의 관계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인생 초기 애착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대상에 대한 여러 가지 표상들이 자녀의 자아 속에 통합되고 내면화되어 실제 환자와 가족과의 상호작용에서 나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어린 시절 대상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대상의 표상이 좋은 대상과 나쁜 대상으로 분열되어 일관성 있게 통합되지 못한 가족은 자기 자녀의 행동 또한 통합시키지 못하고 나쁜 행동으로만 구분하여 표출정서가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이제껏 진행되어 왔던 가족의 의사소통 능력과 비난의 표현수준에만 초점을 맞춘 치료도 중요하지만, 어떤 가족에게는 그보다 부모의 원가족과의 관계를 검토하고 그들의 내적 표상과 상처를 다루고 확인하는 치

료로 확장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가족의 일반적 귀인양식이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지는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귀인의 과정(process)상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귀인이 애착을 통해 표출정서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에 아니라, 애착이 표출정서에 영향을 주고 이것이 귀인양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몇몇 연구자들은 후속 수행과 미래 기대의 변화는 인과귀인에 의한 결과라기보다는 그에 선행하거나 인과귀인과 독립적이라고 주장하면서 (Covington & Omelich, 1976; McFarland & Ross, 1982) 인지과정상 귀인 위치의 문제를 제기하였다(Fiske & Taylor, 198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귀인과정상의 문제를 적용해 볼 때, 내적작동모델이 표출정서라는 어떤 정서반응에 영향을 주어 그것을 토대로 귀인을 하게 되는 다른 과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귀인 오류의 한 종류인 행위자 관찰자 효과(actor-observer effect)로 설명될 수 있다. 이 오류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은 비교적 지속적인 기질요인에 의해서 기인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행동은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가 많다고 생각한다 (Jones & Nisbett, 1972). 기존의 연구는 자녀의 문제행동에 초점이 맞춰진 연구로 즉, 귀인대상이 자녀였다. 이는 타인인 자녀의 행동에 대해 비교적 지속적인 자녀의 기질적 요인으로 귀인하고,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신의 행동을 기질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외적이고 상황적 요인으로 귀인할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같은 상황이라도 귀인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귀인내용이 달라짐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귀인과 표출정서의 관계가 지지

되었던 연구와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나온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귀인양식의 3차원 중 부정사건에 대한 안정귀인이 애착과 부적상관, 그리고 표출정서와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직접적인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자신이 부정적 사건을 보다 안정적 요인에 귀인하는 만큼 자녀의 문제 행동의 원인도 지속적이고 안정적 요인에 귀인할 것이며 이것이 환자에 대한 표출정서가 높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제까지 표출정서와 귀인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는 표출정서에 초점을 둔 귀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환자 증상의 만성화나 그 정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인 귀인이지만,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의 일반적이고 안정적인 귀인패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더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가족개입에 있어 환자 증상에만 초점을 맞춘 환자 행동에 대한 귀인 뿐 아니라, 부모의 일반적 귀인양식 중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안정귀인을 평가하여 이를 수정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아탄력성은 본 연구 결과 애착과 표출정서를 매개하였다. 이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부모는 자아탄력성이 낮으며 이로 인해 표출정서가 높아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전략에 관한 연구(박현진, 1997)에 따르면, 자아가 탄력적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를 덜 느끼고 대처전략으로 문제 중심적 전략과 사회적 지지추구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개인내적 변인이 표출정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은 몇 가지 간접적인 연구들을 통해 가능하다. Smith,

Birchwood, Cochrane과 George(1993)의 연구에서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은 스스로를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ambless 등(2001)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부족한 문제해결능력이 표출정서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음이 밝혀졌다. 즉, 건설적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가족일수록 표출정서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표출정서가 융통성과 참을성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정신병리에 대처하는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가 있다(Hooley & Hiller, 2000). 스트레스 사건으로 가족 내의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자녀와의 스트레스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자아탄력성이 낮은 부모들은 효과적인 대처전략을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자녀에게 부적절한 정서를 표출하게 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에게 치료적 개입을 할 때 부모가 가진 문제해결능력과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훈련시키고 이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게 함으로써 환자와의 상호작용에서의 어려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또한 힘든 상황에서도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표출정서를 환자의 지각으로 평가함으로써 환자가 애착, 귀인양식, 자아탄력성을 실제로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의 특성으로 지각하는지를 검토하였다. 예측대로,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고, 부정적 사건에 불안정귀인을 하며 자아탄력성이 낮은 부모를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자들의 지각 또한 표출정서의 평가도구로 적절함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가족을 직접 평가하는 것 보다 표출정서에 대한 환자의 지각이 표출정서의 여러 연구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제껏 애착과 표출정서, 또는 귀인, 성격과 표출정서 등 단편적 관계를 검토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표출정서에 대한 여러 변인들을 통합하는 전체적 관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로 인해 표출정서가 높은 가족 뿐 아니라 표출정서가 낮은 가족의 특성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부모와 안정 애착을 형성하였고 자아탄력성이 높은 부모들은 자녀와의 스트레스적인 상호작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따뜻하게 수용하며 지지해주는 표출정서가 낮은 가족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부모의 안정애착과 높은 자아탄력성이 표출정서를 낮추는 부모의 강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임상 현장에서는 대부분 환자에 대한 개인치료와 약물치료만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환자의 회복을 위해서는 환자의 가족 환경을 변화시키는 가족치료가 필요하며 또한 가족 개입의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기회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가 어린시절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으로 횡단 연구보다는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매개변인과 중재변인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에서는 질문지가 아닌 면담법과 직접 관찰법으로 다양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여러 연구들은 환자 병의 만성화가 가족의 표출정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으므로 (MacMillan et al., 1986; Schreiber, Breier & Pickar, 1995; Parker, Johnston & Hayward, 1988), 후속 연구에서는 지속기간을 통계적으로 통제하

거나, 피험자 선정 시 만성 환자가 아닌 환자 군을 대상으로 지속기간의 영향을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족의 귀인양식과 표출정서와의 관계를 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선 이제껏 연구된 환자 행동에 대한 가족의 귀인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넷째, 본 연구는 애착을 안정과 불안정 애착으로만 구분하여 연구하였으나, 불안정 애착을 유형별로 더 구분하여 확대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자료이기 예 정상인들에게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통제집단이나 정상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연구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현진 (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배현석 (2000). 정신과 환자가 지각한 가족 표출정서의 한국판 척도개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휘숙 (1998). 애착과 정신증의 관계에서의 자기 관련적 변인의 중재역할.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1, 110-121
- 장휘숙 (2001). 애착과 다섯가지(Big Five)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105-119.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al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 427-453.
-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 Barrow, C., Johnston, M., & Tarrier, N. (1994). Attributions, expressed emotion, and patient relapse: An attributional model of relatives' response to schizophrenic illness. *Behavior Therapy*, 25, 67-88
- Block, J. H.,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and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13, pp. 39-101)*. Hillsdale, NJ: Erlbaum.
- Block, J. & Kremen, A. M. (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49-361.
- Bowlby, J. (1977). The making and breaking of affectional bond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0, 201-210.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88).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in close relationships: A contextual model of marriage as an integrative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713-721.
- Bradbury, T. N., & Fincham, F. D. (1990). Attribution in marriage: Review and critique. *Psychological Bulletin*, 107, 3-33.
- Brewin, C. R., MacCarthy, B., Duda, K., & Vaughn, C. E. (1991). Attribution and expressed emotion in the relatives of patients with

-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 546-554.
- Brown, G. W., Birely, J. L. T., & Wing, J. K. (1972). Influence of family life on the course of schizophrenia disorder.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1, 241-258.
- Butzaff, R. L., & Hooley, J. M. (1998). Expressed emotion and psychiatric relapse: A meta-analysi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5, 547-552.
- Chambless, D. L., Bryan, A. D., Aiken, L. S., Steketee, G., & Hooley, J. M. (2001). Predicting Expressed emotion: A Study with families of obsessive-compulsive and agoraphobic outpatient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 225-240.
- Cole, J. D., & Kazarian, S. S. (1988). The level of expressed emotion scale: a new measure of expressed emoti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4, 392-397.
- Covington, M. V., & Omelich, C. L. (1979). Are causal attributions causal? A path analysis of the cognitive model of achievement motiv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487-1504.
- Diamond, D., & Doane, J. A. (1994). Disturbed attachment and negative affective style. An intergenerational spiral.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64, 770-781.
- Falloon, I. R. H., Boyd, J. L., McGill, C. W., Ranzani, J., Moss, H. B., & Gillderman, A. M. (1982). Family management in the prevention of exacerbation of schizophrenia: A controlled study.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06, 1437-1440.
- Fiske, S. T., & Taylor, S. E. (1984). *사회인지론*. (박오수 역). 서울: 법문사.
- Fletcher, G. J. O., & Fincham, F. D. (1991). *Attributional process in close relationships*. In G. J. O. Fletcher & F. D. Fincham (Eds.), *Cognition in close relationships*. Hillsdale, NJ: Erlbaum.
- Hooley, J. M. (1986). Expressed emotion and depression: Interactions between patients and high-versus low-expressed-emotion spous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5, 237-246.
- Hooley, J. M., & Licht, D. M. (1997). Expressed emotion and causal attributions in the spouses of depressed patient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6, 298-306.
- Hooley, J. M., & Hiller, J. B. (2000). Expressed emotion and personalit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9, 40-44.
- Hooley, J. M., & Gotlib, I. H. (2000). A diathesis-stress conceptualization of expressed emotion and clinical outcome. *Applied & Preventive Psychology*, 9, 135-151.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J.: General Learning Press.
- Kerns, K. A., & Steven, A. C. (1996). Parent-child attachment in adolescence: Links to social relations and personalit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5, 323-342.
- Kobak, R. R., & Sceery, A. (1988). Attachment in late adolescence: Working models, affect regulation, and representations of self and

- others. *Child Development*, 59, 135-146.
- MacMillan, J. F., Gold, A., & Crow, J. T., Johnson, A. L., & Johnston, E. C. (1986). Expressed emotion and relaps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48, 129-137
- Matas, L., Arend, R. A., & Sroufe, L. A. (1978). Continuity and adaption in the second year: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attachment and later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49, 547-556.
- McFarland, C., & Ross, M. (1982). Impact of causal attribution on affective reactions to success and fail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937-946.
- Miklowitz, D. J., Goldstein, M. J., Nuechterlein, K. H., Synder, K. S., & Mintz, J. (1988). Family factors and the course of bipolar affective disorder.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5, 225-231.
- Miklowitz, D. J., Wendel, J. S., & Simoneau, T. L. (1998). Targeting dysfunctional family interactions and high expressed emotion in the psychosocial treatment of bipolar disorder. *In Session*, 4, 25-38.
- Paley, G., Shapiro, D. A., & Worrall-Davies, A. (2000). Familial origins of expressed emotion in relatives of people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Mental Health*, 9, 655-663.
- Peris, T. S., & Baker, B. L. (2000). Applications of the expressed emotion construct to young children with externalizing behavior: Stability and prediction over time. *Journal of Child Psychiatry*, 41, 457-462.
- Peterson, C., Semmel, A., von Baeyer, C., Abramson, L. Y., Metalsky, G. I., & Seligman, M. E. P. (1982).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6, 287-300.
- Paterson, R. J., & Moran, G. (1988). Attachment theory, personality development, and psychotherapy. *Clinical Psychology Review*, 8, 611-636.
- Roberts, J. E., & Gotlib, I. H.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0, 310-320.
- Shaver, P. R., & Brennan, K. A. (1992). Attachment styles and the "Big Five" personality traits: Their connec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romantic relationship outcom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8, 536-545.
- Smith, J., Birchwood, M., Cochrane, R., & George, S. (1993). The needs of high and low expressed emotions families: a normative approach.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28, 11-16.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muter (Ed.), *Minnesota Symptom on Child Psychology (Vol. 16, pp. 41-81)*. Hillsdale, NJ: Erlbaum.
- Sroufe, L. A., Carlson, E., & Shulman, S. (1993). Individuals in relationships: Develop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In D. C. Funder, R. D. Parke, C. Tomlinson-Keasey, & K. Widaman (Eds.), *Studying lives through time: Approaches to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p. 315-342)*.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Vaughn, C., & Leff, J. (1976a). The influence of

family and social factors on the course of psychiatric illness: A comparison of schizophrenic and depressed neurotic patients.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9, 125-137.

Weissman, A., Lopez, S. B., Karno, M., & Jenkins, J. (1993). An attributional analysis of expressed emotion in Mexican-American families with schizophrenia.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601-606.

원고접수일 : 2003. 10. 6

게재결정일 : 2004. 12. 6

K C I

The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Attributional Style, Ego-Resiliency and Expressed Emotion in Family

Jung-sun Huh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ality of parents' attachment to their own parents and the quality of expressed emotion(EE) to patients. In addition to direct path of the effect of parents' attachment on EE, we investigated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attributional style and ego-resiliency as cognitive and personality variables. Korean-Level of Expressed Emotion(K-LE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IPPA), Attributional Style Questionnaire(ASQ) and Ego-Resiliency Scale(ER) were administered to 91 patients and their family. Results indicated that parents' attachment to their own parents was able to predict EE significantl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attributional style is not significant statistically. However, the stable attribution about negative events of three subscales in attributional styles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ttachment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EE. Also, parents' ego-resiliency mediated between attachment and E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arents' internal working models of attachment with their own parents early in life are a risk factor transmitting EE to their offspring later. Thus, for patients' better recovery, we should need effective family interventions focusing not only on medication and individual therapy, but also on parents' attachment, attributional style and ego-resiliency.

Keywords : Expressed Emotion, Parental Attachment, Attributional Style, Ego-Resiliency